

정찬주 장편역사소설

못다 부른 명량의 노래

(강진의 명장, 김억추 장수 이야기)



강진군
【문화예술과】

평양성 타격

선조25년 8월.

평양성에서 굶주리던 왜군은 성 밖으로 나와 노략질을 일삼았다. 성 밖의 옥수수나 조, 수수가 자라는 밭은 멧돼지 떼가 지나간 것처럼 엉망으로 변했다. 다행히 벼는 아직 알곡이 익지 않았으므로 왜군들이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한 달 후면 왜군들이 벼이삭도 도둑질해 갈 판이었다. 군량미가 떨어져가는 왜군이 차츰 평안도 전역을 돌며 노략질할 것이 뻔했다.

도원수 김명원은 이조판서 겸 평안도순찰사 이원익과 함께 선조를 알현하기 위해 꼭두새벽에 청천강 군막을 떠나 아침 일찍 행재소에 들어섰다. 이원익은 일찍이 황해도에서 이이의 지시를 받고 군적을 정리한 적이 있는 군사지식에도 조예가 깊은 문신이었다. 김명원이 선조에게 아뢰었다.

“전하, 왜놈들 분탕질이 심해 양민들의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평양 부근 양민들은 이미 유랑민이 되어 함경도를 떠도는 형편입니다.”

“양민들 피해를 줄일 방도가 있소?”

김명원이 이원익에게 눈치를 주자 이원익이 아꼈다.

“왜적의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으니 지금 평양성을 공격하려고 하옵니다.”

“소서행장(고니시 유키나가)의 왜적은 군사가 아니라 도적 떼와 다를 바 없사옵니다. 신들이 양민의 피해를 막지 못한 죄는 이미 태산 같사옵니다.”

김명원이 중죄인이라도 된 양 고개를 푹 숙인 채 이원익을 거들었다. 그러자 선조가 물었다.

“비책이 있소?”

“평양성을 공격하려고 하옵니다.”

“지난달에 천군도 참패하고 물러났는데 가능한 일이오?”

“평양성을 수복하는 것이 최상의 목적이오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왜적들이 성 밖으로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할 수는 있을 것이옵니다.”

이원익이 또 아꼈다.

“평양 인근의 밭은 이미 쑥대밭으로 변했고 다가오는 벼농사 수확기가 걱정이 되옵니다.

그러하오니 왜적들에게 조선관군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함부로 날뛰는 것을 막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공격한다면 군사는 충분하오?”

“충분하지는 않사오나 토병과 유랑민을 모으면 1만 명은 될 것 같습니다.”

“관군은 얼마나 되오?”

“지난달 평양성 공격에 소장이 거느렸던 관군 3천여 명은 청천강에서 왜적의 북진을 막기 위해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원은 솔직하게 아꼈다. 그러니까 양민 토병과 유랑민 7천여 명은 전투력에 큰 도움을 주는 인원은 아니었지만 왜군들에게 위세를 보이기에는 충분했다.

“우리 장수들은 어떠하오?”

“전하, 여기 있습니다.”

김명원은 소매 속에서 장수들의 이름이 적힌 장지를 선조에게 바쳤다. 선조는 한 번 보더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옆에 있는 승지에게 교지를 쓰라고 지시했다. 김명원이 작성한 장지에는 맨 위에 조방장 김응서, 맨 밑에 수군대장 김억추 이름이 쓰여 있었다.

조방장 김응서

별장 박명현

별장 임중량

수군대장 김억추

승지들이 쓴 교지는 이원익이 받았다. 행재소를 나온 김명원은 참좌군관을 먼저 청천강으로 보냈다. 청천강 언덕에서 수비하고 있는 장수들을 불러 모으도록 지시했다. 이원익도 장수들에게 교지를 나눠주기 위해 김명원을 뒤따라왔다.

김명원과 이원익은 신시에 청천강 군막에 도착했다. 의주에서 내려오면서 점심도 거른 채 달려왔던 것이다. 그만큼 춘음을 아껴야 했다. 비가 내리려는지 비구름이 남쪽에서 느릿느릿 몰려오고 있었다. 장수들은 이미 군막에 다 모여 있었다. 이원익이 엄숙한 목소리로 교지를 전했다.

“전하의 분부이시니 목숨을 아끼지 마시오.”

이어서 김명원이 말했다.

“김응서 장수가 조방장이 된 까닭은 이러하네. 평안도 용천 출신으로 이곳의 지리에 밝기 때문에 필시 나를 도와 싸움에서 승리로 이끌어야 할 것이네.”

“예, 도원수 나리.”

“박명현 장수를 별장으로 삼은 까닭은 용장인 그대가 선봉장을 맡아야 하기 때문이네. 또 임중량 별장은 바닷가 여러 고을의 양민 토병을 선발하여 후방인 중화를 지키시게.”

“예, 도원수 나리.”

“김억추 장수는 지난번에 전하께 아뢰신 적이 있네. 그때 이미 수군대장으로 전하께서는 점지하고 계셨네. 두만강에서 싸운 경험이 있는 그대가 대동강에서도 계책을 세워 적을 물리치리라 믿네.”

별장 박명현이 물었다.

“왜적은 문을 열고 성 안으로 들어오게 유인작전을 펴서 조총을 쏘아 명군을 참패케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유인작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박 별장, 우리는 군사가 적어 들어갈 수도 없네. 다만 성 밖에서 왜적에게 타격을 가하는 계책만이 타당할 것이네.”

“그것도 사방에서 동시다발로 공격해야 합니다. 그래야 왜적이 갈팡질팡 더 위축될 것입니다.”

김응서의 말에 김억추도 한 마디 했다.

“소장은 왜적들이 북쪽을 방어하는 동안 남쪽 대동강을 점거한 뒤 성 안에 불화살을 쏘 후퇴하지 못하게 틀어막아불립니다.”

이는 명군 조승훈이 평양성을 공격할 때 김명원과 함께 세워 두었던 계책이었다. 그러나 선조가 행재소를 지키라며 김억추를 보내주지 않는 바람에 무산됐던 것이다. 김명원이 장수들에게 다시 지시했다.

“출진은 내일 묘시에 하겠네. 그 사이 별장들은 군졸들에게 습진과 습사를 반복해서 시키시게.”

습진(習陣)이란 진법 훈련이고, 습사란 활쏘기를 뜻했다. 장수들은 즉시 군막으로 돌아가 3천여 명의 장졸들을 데리고 공격과 방어훈련을 시켰다. 또 부대별로 돌아가며 활터로 나아가 습사를 시켰다. 김억추는 관군 중에서 1백여 명의 어부 출신을 차출하여 노를 젓는 격군과 활을 쏘는 사부(射夫)를 뽑았다.

또한 닳을 다루는 무상과 돛을 조작하는 요수를 지명했다. 병선은 평양성에서 후퇴할 때 왜군에게 빼앗겼으므로 어부들을 찾아가 포작선 10여 척 정도를 빌려야 했다.

다음날 묘시. 빗방울이 나뭇잎에 후드득후드득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어제 오후부터 비구름이 하늘을 덮더니 마침내 비가 오고 있었다. 김명원은 별장과 수군대장을 불러 물었다.

“비가 오는데 어찌하는 것이 좋겠는가?”

“장졸들에게 명을 내렸으니 출진해야 합니다.”

장수들 모두가 출진을 바랐다. 비가 오는 날에는 왜군이 성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므로 차라리 출진하기에는 호기일 수 있었다. 장수들의 의견을 들어본 김명원은 마침내 출진을 명했다.

“출진하라!”

3천여 명의 관군은 장사진 대오로 움직였다. 탐망군이 먼저 나가 수색과 정찰을 하고, 그 다음은 별장 박명현의 선봉대, 뒤따라 조방장 김응서의 본대와 별장 임중량의 후위대, 맨 뒤에는 수군대장 김억추의 부대가 행군을 시작했다. 선두에서 가던 김명원이 말을 타고 김억추에게 왔다. 김억추의 얼굴은 비장했다.

“평양성을 잘 아는가?”

“방어사로 있을 때 순찰을 자꼬 돌아 훑혀지라.”

“기분이 어떤가?”

“지난 6월에 성을 내줄 때 소장은 왕성탄 후방에서 지휘하고 있었지라. 탄수군 1선, 2선이 왜적에게 밀리고 탄수장들이 벨 수 없이 후퇴하는디 소장은 하늘을 원망했지라.”

강바닥에 자갈이 보일 정도로 가뭄이 들어 왜군이 왕성탄으로만 탁류처럼 공격해왔는데, 관군의 1선방어와 2선방어가 와르르 무너져 방어사 김억추도 단기필마가 돼버렸던 것이다. 왜군의 압도적인 전력에는 진법이고 뭐고 아무 소용없었다. 기우제를 지냈지만 비를 뿌려주지 않는 하늘을 원망했을 뿐이었다.

“지금도 하늘을 원망하는가?”

“아니지라. 행군하기 좋게 요로코름 비가 내리고 있응께라.”

“왜적의 탐망군이 어딘가에 나와 있을지 모르니 조심해야 허네.”

“예, 도원수 나리.”

“무슨 할 말이 있는가?”

“하늘은 누구의 편도 아니지라. 공평허지라. 다만 사람이 공평허지 못해 그르치는 것이 아닐께라? 공께 사람은 하늘이 으쩌든 항시 최선을 다해야 허졌지라.”

“그대 말이 맞네. 사람이 최선을 다할 때 하늘이 사람을 돕는 게지.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일세.”

이윽고 김명원의 군사는 평양성에서 가장 가까운 순간에 도착했다. 다행히 왜군의 탐망군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어찌면 왜장 고니시는 명군에게 승리한 기분에 젖어 방심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순안에 도착한 김명원은 즉시 군사를 평양성 외곽으로 이동시켰다. 왜장의 방심을 빠르게 파고 들어가야 타격을 더 크게 줄 수 있었다. 더구나 내리던 비가 멈추고 하늘이 파랗게 뚫리고 있었다. 왜군이 떨어진 군량을 보충하기 위해 성문을 열고 나올 가능성도 컸다. 김명원은 조방장 김응서를 앞세워 본대를 거느렸다.

“나는 보통문을 치겠네. 선봉대 별장은 칠성문을 치게. 수군대장은 양각도를 먼저 친 다음 대동문을 치게. 후위대 별장은 후방에서 양민들에게 북 치고 나발을 불게 하여 우리 군사의 사기를 올리도록 하게. 다만 화포를 쏘아 공격개시를 할 테니 화포 소리가 나기 전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말게. 알겠는가?”

“예, 도원수 나리.”

김억추는 수군을 이끌고 평양성 서쪽에서 대동강으로 합류하는 보통강으로 나아갔다. 보통강 강변에 양민의 선소가 있고 부근에는 어촌이 몇 개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평양성 서쪽의 왜군 경계는 아주 소홀했다. 외성인 탓에 왜군이 보이지 않았다. 왜군은 내성과 중성 쪽에 몰려 있었다. 김억추는 탐망군을 양각도로 먼저 보낸 뒤 선소가 있는 어촌으로 갔다.

행운이었다. 포작선을 빌릴 필요가 없었다. 선소 골강에 돛으로 움직이는 상선이 한 척 정박돼 있었다.

“대장 나리. 장삿배임메다. 난리가 난 바람에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장삿배임메다.”

김억추는 직접 상선 위로 올라가 수색했다. 상선 갑판이나 선실 안에 있는 물건은 하나도 없었다. 이미 어부들이 와서 가져가버린 뒤였다. 돛을 떼어가지 않은 것만도 천만다행이었다. 상선은 수군 1백여 명을 태우고도 자리가 넉넉했다.

병선이 아닌 상선이었으므로 왜군에게 수군을 장사꾼으로 위장 하기에 좋았다. 양각도로 정찰 나갔던 탐망군이 와서 보고 했다.

“초소에서 즐고 있는 왜적 두 놈을 죽이고 왔슴메다.”

“교대할 왜군이 올지 모른게 빨리 가야겠다.”

김억추 수군이 탄 상선은 돛을 달고 보통강에서 양각도를 향해서 빠르게 움직였다. 때마침 서쪽에서 하늬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요수 군졸이 돛을 껌싸게 움직여 된하늬바람을 한가득 받았다. 김억추는 수군에게 모두 전포를 벗고 평복으로 위장 하거나 저고리를 입도록 지시했다. 상인으로 위장하기 위해서였다.

상선은 평양성에서 보이지 않는 양각도 남쪽에 정박했다. 김억추는 갑판을 돌아다니며 말했다.

“왜놈덜이 중성과 내성에만 몰려 있는 거 같다. 이쪽 외성 허고 남쪽은 비우다시피 허고 있음께 을매나 존냐. 화포 소리가 나쁜 우리는 대동문으로 다가가서 불화살을 쏠 것이다.”

김억추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참좌군관이 물었다.

“대장 나리. 불화살이 멕히갔슴메까?”

“비가 내려서 나도 걱정이야. 허지만 불화살을 정확하게 쏘다쁜 왜놈덜 군막을 태울 수는 있을 것이다.”

그때였다. 북쪽에서 하늘을 찢는 듯한 화포 소리가 연달아 났다. 북과 나발 소리가 들려왔다. 김억추는 요수에게 돛을 올려 상선이 대동강을 타고 올라가도록 지시했다. 장사꾼으로 위장한 수군들이 선실 안에서 불화살을 만들었다. 상선이 대동문 앞에 이르렀을 때였다. 김억추가 불화살 하나를 성 안으로 날렸다. 불화살은 왜군 지휘소 같은 누각 지붕에 떨어졌다.

왜장들이 누각에서 도망치는 모습이 멀리서도 보였다. 그러자 수군들이 일제히 누각을 과녁처럼 여기고 불화살을 쏘았다. 한참 만에 누각이 불탔다. 수군들이 함성을 질렀다.

김억추는 또 다시 왜군 군막을 찾아내어 불화살을 날렸다. 그러면 수군들도 김억추의 불화살이 날아간 지점을 확인하고는 시위를 당겼다.

“화살을 아끼그라. 함부로 쏘지 마라.”

김억추는 자신이 겨냥한 곳에만 화살을 쏘도록 수군들에게 명했다. 아무 데나 화살을 쏘는 것은 낭비였다. 수군들은 김억추에게 습사훈련을 받은 대로 화살을 쏘았다. 비가 오지 않았다면 화공작전이 더욱 효과를 보았을 텐데 김억추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 하늘은 공평하니 진인사대천명 할 뿐이었다.

한 나절을 공격했는데도 왜군은 성 안에서 꿈쩍을 안 했다. 수비만 할 뿐 공격은 회피했다. 이윽고 북쪽 본대에서 또 다시 화포소리가 났다. 철수하라는 신호였다. 김억추가 수군들에게 철수를 지시했다.

“철수하라!”

“성 안으로 들어가 왜적을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물러서라는 말씀임메까?”

참좌군관이 김억추에게 항의하듯 말했다. 그러자 김억추가 말했다.

“오늘 작전은 왜적에게 조선관군의 심을 보여주는 것이었네. 타격을 받고 놀랬응께 성 밖으로 나와 노략질허기가 쉽지 않을 거네. 군사가 적은 우리의 오늘 작전은 여그까정이네.”

관군의 숫자가 3천여 명에 불과한데 왜군 1만여 명이 버티고 있는 평양성 안으로 들어가 무찌른다는 것은 쇠를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일과 다르지 않았다. 김억추 자신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는 도원수의 명을 따라야 하는 일개 장수일 뿐이었다. 평양성 탈환은 후일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다. <계속>